

|  |  |  |
|--|--|--|
|  <p>대한민국국회<br/>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p> | <h1>보도자료</h1> <p>(2019. 3. 8 금)</p>                        |  <p>국회미래연구원<br/>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p> |
|  | <p>국회미래연구원<br/>http://www.nafi.re.kr<br/>(02) 786-2199</p> |  |

## 13대 분야로 살펴보는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 「③ 정주여건」 분야 -

- 요약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 연구의 13대 분야 중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토연구원(이용우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50년에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모여 사는 모습이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주거형태인 아파트는 더욱 고층화되고, 도심과 외곽의 주택가격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주거와 일자리가 집중되는 국토의 일부분만 발전됨에 따라 국토 불균형 발전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2050년 가장 바람직한 미래는 기술혁신으로 인구의 전국적인 분산거주와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예측했다. 연구팀은 이상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성장거점 기반의 스마트 도시 육성과 비수도권의 쇠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연구원은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mailto:ybkim@nafi.re.kr))

(정주여건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민보경

(02-2224-9804, [bmin@nafi.re.kr](mailto:bmin@nafi.re.kr))

※ 2019년 3월 11일 조간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 연구의 13대 분야 중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토연구원(이용우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 ■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

2050년에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모여 사는 모습이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주거형태인 아파트는 더욱 고층화되고, 도심과 외곽의 주택가격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 GTX등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교통수요가 분산되고 통근시간이 줄어들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주 분리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였다. 2030년 이후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간의 인구와 일자리 격차는 더 심해지면서 수도권-지방의 정주여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주거와 일자리가 집중되는 국토의 일부분만 발전됨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 가치는 더욱 급등하고, 지방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격차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불균형 발전의 심화는 거주지 안전에 대한 사회 인프라 양극화를 가져온다. 소득과 거주지 격차는 도시 환경 및 관련 서비스의 차별로 연결되어 거주지역에 따른 계층사회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튜브트레인, 하이퍼루프 등 교통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첨단기술은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고, 서민들은 여전히 기존 교통수단에 의존해 수도권 외곽 또는 지방에서 출퇴근하는 정주여건에 따른 삶의 질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은 인구의 양적 측면에서의 격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교육, 의료 등 생활의 질(質)적 차이로 인해 인구가 집중된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라며 수도권과 지역의 생활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연구팀에서 제시한 2050년 선호되는 가장 이상적인 미래는 기술혁신으로 인구의 전국적인 분산거주와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상 접촉 중심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굳이 복잡하고 거주비가 비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비관적 미래를 피하고, 이상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성장거점 기반의 스마트 도시 육성과 비수도권의 쇠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강조하였다. 특히, 각 지역에 특화된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업 유치정책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밖에, 지방대도시 강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서비스 수준 제고와 생활인프라 확충,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추진, 편리한 스마트도시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의 대한민국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18년부터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미래 환경변수 13대 분야를 확정하고, 각 분야별로 내외부 연구진이 참여하는 11개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원은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mailto:ybkim@nafi.re.kr))

(정주여건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민보경

(02-2224-9804, [bmin@nafi.re.kr](mailto:bmin@nafi.re.kr))